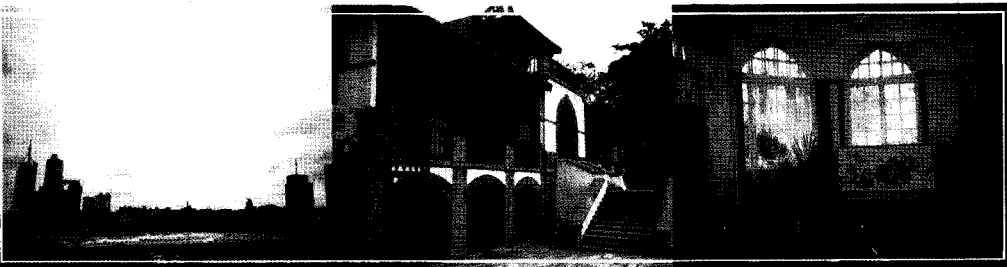


중국대륙 시리즈 제 6편

모택동 어록과 화장실 당번



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칭다오(靑島)시에 들어섰다.

연태시 기차참(汽車站: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3시간 30분을 달렸다.

2년만에 다시 찾은 칭다오시.

2년전에 짓고 있던 시내 중심가의 건물은 모두 완공되었고, 시정부가 있는 번화가는 더욱 단정해졌다.

이번으로 칭다오시는 세 번째 방문이다.

전에는 조금 싼 호텔에서 잠을 잤으나 이번에는 칭다오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자기로 했다.

가장 좋은 호텔은 화장실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칭다오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은 초현대식 호텔인 홀리데이 인과 해천(海天)호텔, 그리고 해경((海景)호텔이라한다.

홀리데이인이나 해천 호텔은 모두 20층이 넘는 고층빌딩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해경호텔은 칭다오 해변가옆의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 호텔이다. 그중에서 해경 호텔로 가기로 했다.

해경호텔은 전에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한번 가보았다. 100위안(1만6천원)짜리)중국부패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대나무 밥 등 100여가지의 음식이 대단히 훌륭한 곳이었다.

붉은 오지기와가 덮여있는 스페인 풍의 해경 호텔에 체크인 했다. 체크인 하면서 보니까 별이 다섯 개다.

트윈룸 1박에 580위안(9만5천원)이다. 그나마 5월 비수기여서 30% 디스카운트 한 금액이다.

바닷가 쪽 방을 달라고 하니깐 방도 없을 뿐 아니라 요금도 세배에 가까운 1500위안(23만원)이다. 나그네 처지에 하룻밤에 23만원을 내고 자기엔 부담스럽다. 580위안짜리 방을 달라고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깐 후불이란단.

중국엔 없는 방식이다. 중국에선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 방값에 하룻방 방값만큼의 임차금을 내야하는데 그게 아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임차금이라는 것에 좀 의아했었다. 방값만 내면 되지, 무슨 임차금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임차금은 손님이 방에서 음료수, 식사 등을 시켜 먹는 것과 호텔 비품의 도난에 대비해서 미리 얼마간을 받아두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임차금은 커녕, 크레딧 카드의 오픈 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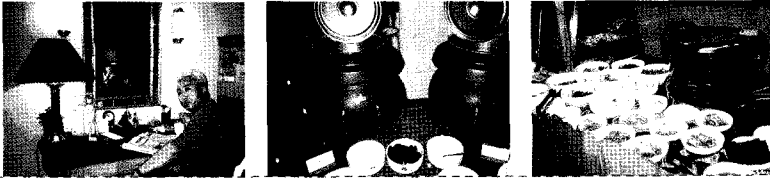
중국에도 이런 호텔이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기분은 좋다. 손님을 믿어주는 것이다.

호텔 종업원이 가방을 받까지 들어다준다. 많이 세련된 중국 호텔이다.

방에 도착하니 책상에 미니 텔레비전 중국 위성기가 놓여있고 유리나리외의 중국 호텔은 중국 호텔보다 세련된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준비한 것이다. 풍족이 많이 발전했다더니 과연 발전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후문트 종업원이 오렌지 주스와 과일 한접시를 가지고 왔다.

호텔에 들어가는데 종업원이 했더니 서비스란다. 더더욱 감동을 받았다.



1 2 3

1.해경호텔에서의 필자(서비스가 놀랍다)
2.3.해경호텔의 식사 (한국인을 위한 된장국과 김치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별다섯개짜리 호텔에서도 없다. 일본에서 제일 좋다는 오쿠라 호텔이나 뉴오타니에서도 이 정도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프랑스나 영국, 이태리,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만치 않은 호텔이군 하고 생각하면서 방 구석 구석, 화장실 등을 살펴보았다. 화장실 시설이 최고급이다. 변기, 욕조 등이 모두 최고급이고, 비누, 면도기, 빗, 샴푸 등도 모두 최고급을 가져다 놓았다. 기분이 아주 흡족하다.

강유웨이의 집과 장개석 별장

거리엔 비가 뿌리지만, 나그네는 여행길에 나서면 쉬지 않는다.

청도시 앞바다엔 강풍이 불고 거리엔 행인도 뜸하다.

이번 청도시 방문에선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렌트카 한 대를 불러 우선 강유웨이의 집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강유웨이라면 1890년대 중국의 문명개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오늘날 중국 최고의 대학인 북경대학도 바로 강유웨이와 그의 제자들이 세운 것이다.

강유웨이는 중국이 하루빨리 문명개화해야 서구열강이나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주장, 러시아의 피터 대제나 일본의 명치천왕처럼 중국도 유신을 해서 서구문명을 빨리 받아 들여야 한다고 황제에게 4번이나 상소했다. 1897년 독일이 청도 앞바다인 교주만을 강점하자 강유웨이는 변법, 즉 근대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가 드디어 광서제에게 받아 들여져 광서제는 근대화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태후가 정변을 일으키는 바람에 불과 103일만에 실패로 돌아간다.

그 이듬해 청다오는 독일의 조차지가 되고 이후 중국은 서구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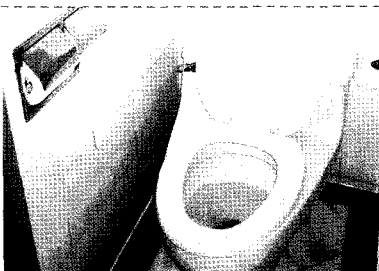
강유웨이는 진독수, 양계초 등 당대의 재사들을 제자로 거느리면서 중국의 문명개화를 주창했으나, 훗날 중국 공산주의 사상의 모태가 되는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에 밀려 좌초된 지식인이다.

청다오 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가 제4해수욕장을 조금 지나 독일조계의 입구에 있는 한 작은 골목.

그 골목 안에 강유웨이의 집이 있다. 강유웨이가 살던 이 집은 일종의 별장이다.

청다오는 중국 최고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해서 살기 좋은 곳이다. 강유웨이의 집은 2층의 대저택이다. 마당엔 아름답디 은행나무가 있고 그 정원에선 청다오만이 내려다 보인다. 재작년에도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대대적으로 집을 보수하고 있을 때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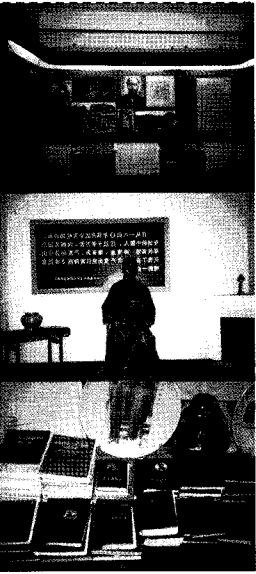
1층의 현관에 들어선다. 고풍스런 서양 양옥이다. 아래 층의 복도를 지나 나무계단을 오르면 그가 책을 집필하던 서재가 있다. 단정 단아하면서 우아하다.



4. 해경호텔 화장실 / 5.해경호텔의 최고급 화장실시설 / 6.강유웨이집앞 골목



모택동 어록과 화장실 당번



- 6 캉유웨이 저작의 서재 /
- 7 캉유웨이 동상 /
- 8 장개석의 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택동 어록

오늘날 그의 서재는 일종의 캉유웨이 박물관이다. 139권의 저작을 남긴 대학자답게 그가 쓴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의 일생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있다.

그중에서 1919년에 출판된 <대동서>(大同書)는 그의 대표작이라 볼 수있다.

그 내용은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 나오는 유가(儒家)의 이상세계를 유토피아로 보고 박애, 평등사상을 펴서 그러한 이상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 실현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개혁에 실패한 감이 있다.

캉유웨이에게서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의 글씨이다.

그는 비학파(碑學派)로 불리우는데 이것은 소위 비문에 쓰여진 서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는 특히 북비, 즉 중국의 북쪽에서 발견되는 비문에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가져서 금석학(金石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조 말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도 중국의 금석학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집 2층 베란다에 서서 칭다오시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내려다본다.

그도 100년전에 이 집의 베란다에 서서 저 바닷가를 내려다 보았으리라. 그리고 밤이면 책을 쓰고 중국의 앞날을 걱정했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이제 그가 걱정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바로 이 도시에 있는 하이얼 그룹은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로 11월초에는 드디어 앞으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소니와 더불어 세계3대 가전회사가 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 말은 그저 한낱 허풍이 아니다. 현재 하이얼 그룹은 세계전자업계 6강에 들어간다.

하이얼이 워낙 세계 나오자, 11월에는 삼성전자도 하이얼의 제품을 분석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 100년전 캉유웨이가 주장한 변법자강, 즉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국력을 키우자고 한 말을 하이얼 그룹이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수가 불만한 곳이 있으니 가자고 한다.

운전수는 이곳 칭다오가 고향. 아무래도 이곳 사정에 밝을테니 그가 가지는 곳을 따라갔다.

그가 나를 안내한 곳은 장개석의 여름별장이었다.

3층 대리석의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다. 한때 장개석이 이곳에서 여름 피서를 지냈다는데 오늘날 이곳은 그저 하나의 문물 보존단위가 되었다.

장개석의 이름은 사라지고, 건물 안에는 국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좌판 위를 보니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시대에 중국인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모택동 어록을 쌓아놓고 팔고 있다. 포켓용이어서 뒷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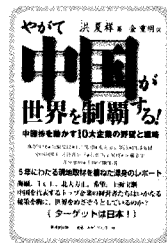
문화대혁명은 경제정책에 실패한 모택동이 2인자 그룹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정치공작이다. 그 와중에 수백만의 중국인민이 죽고, 2천만명이 하방(정신개조를 위해 지방으로 쫓겨나서 중노동을 하는 것)당했다.

붉은 책인 모택동 어록을 팔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 가게와 다를 바 없을 거라 할 때 어떤때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푸 사라고 권한다.

처음엔 100위안(1만5천원)이었던 모택동 어록이 결국 나중엔 30위안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나그



네는 단돈 10위안이라도 그걸 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관매원이 그 책을 들고 복도 끝까지 따라나왔다. 한때는 금과옥조와 같았을 모택동 어록이 이제는 사기는 이가 없어 이 외국 나그네에게까지 단돈 30위안에 팔려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찻집한 마음으로 걸어나왔다. 다시 차를 몰아 칭다오시 해변가에 나왔다.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몹시 거세다. 한때는 '죽의 장막'이라 해서 한국사람은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던 이 중국 땅에서 서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 모택동에 관한 책을 보다가 걸리면 파출소에 끌려가던 때도 있었다. 현대 지금은 중국을 한시바빠 알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한국의 기업은 1만7천개나 중국에 진출했다. 그중에 한국기업이 제일 많이 진출해있는 곳이 이곳 칭다오이다. 여기에는 농심라면을 비롯한 5천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다. 세월은 정말 약이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는가. 바닷 바람이 몹시 차다. 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한잔 마시자고 했다. 이곳의 제일 좋은 호텔 중의 하나인 해천 호텔 커피숍에 들어섰다. 해천 호텔은 바로 이 바닷가의 끝에 있는 20층이 넘는 초현대식 호텔이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중국의 대표적인 생수인 '와하하'도 한잔 마셨다. 그리고 나니, 역시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에 갔다. 50세는 넘어보이는 화장실 당번이 깜짝 반기워 한다. 어렵쇼, 소변을 보는 내 뒤에서 안미를 해준다. 그리고는 물수건 한 장을 두손으로 공손히 비쳐준다. 화장실 당번이 있어서인지 화장실 안은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깔끔하다. 변기며 세면대 모두 최고급이다. 향수도 뿌려서 냄새도 은은하다. 티를 한푼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화장실 당번은 일일이 문을 열어주며 찍으라고 손짓한다. 덕분에 사진은 잘 찍었다. 중국돈 3위안(450원)의 티를 받자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화장실 당번을 죽은 모택동이 보았다면 뭐라 얘기할 것인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자본주의 물이 단단히 들었군. 넌 하방이야.'



홍상삼 작가가 펴낸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 (국일증권경제연구소 간)의 일본어판이 일본에서 발간되었다.

일본의 메이저급 출판사인 광제당(廣濟堂)은 지난 10월20일부터 '곧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제목으로 홍상삼 작가의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를 출간, 판매에 들어갔다.

현재 이 책은 출간 3주만에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의 베스트 셀러 100위권에 진입했다. 가격은 1700엔.

